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전치사 on의 인지언어적 의미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윤 영 민

윤영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주 심 영문학박사 이 종 택



위 원 영문학박사 손 달 례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2.1. 전치사개념 및 선행연구	5
2.2. 인지의미론의 개념	7
2.3. 전치사의 인지문법적 분석	8
2.4. 의미확장의 양상	12
III. on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15
3.1. 표면과 접촉	15
3.1.1. 정적관계	15
3.1.2. 과정	19
3.1.3. 표면과 접촉의 제 양상	21
3.2. 연속	26
3.2.1. 동시	26
3.2.2. 계속	27

3.3. 연결	30
3.3.1. 작동	31
3.3.2. 진행	32
3.4. 지지	32
3.4.1. 의존	32
3.4.2. 근거	34
3.4.3. 관련	35
3.5. 다른 전치사와 의미차이 비교	37
3.5.1. 공간이란 의미에서 in, at, by와 비교	37
3.5.2. 시간이란 의미에서 in, at과 비교	45
3.5.3. 방향이란 의미에서 in, at, to와 비교	47
3.5.4. 원인이란 의미에서 at, for, with와 비교	50
3.5.5. 관련이란 의미에서 about과 비교	52
IV. 결론	56
4.1. 결어	56
4.2. 교육적 함의 및 제언	57
참고문헌	58

ABSTRACT

Cognitive Analysis of Preposition *on*

Yoon, Yeong-mi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how the various meanings of *on* are cognitively related. Secondly, the meanings of the preposition *on* are compared with other prepositions such as *about*, *at*, *by*, *for*, *in*, *to*, *with* in terms of each core meaning. Therefore target language learners can have an opportunity to use correctly the preposition as their intend.

In this study, the preposition *on* is treated as a content word, not a function word. It is analyzed under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suggested by Langacker(1988). It is shown how the meaning network of preposition *on* is inferred and established from its prototype meaning. The process is explained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trajector and landmark.

The basic meaning of the preposition *on* is 'touching an objective's surface'. It shows various meanings as the cognitive figures between trajector and landmark. And the meaning of the preposition *on* is

extended to 'connection', 'continuation', and 'support'. Each extended meaning of *on* is also re-extended to another meaning based on it.

Each meaning of *on* is compared with other prepositions in the light of space, time, direction, or cause. Each core meaning of the prepositions can be defined like the following sentences. *On* means 'touching an objective's surface', *in* means 'inside of an objective', *at* means 'a point', and *for* means 'a purpose'. The results of these comparisons among them indicate that the differences of each core meaning are reflected as to what kind of preposition is chosen.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분야는 어휘학습이다. 어휘학습 가운데서도 전치사의 학습에 관련해서는 전치사가 쓰인 환경에 따라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동사와 불변화사를 합한 구절동사로 보고 무조건 관용어구로 암기하도록 해왔다(조선영 2001). 이와 같은 학습이나 교육을 하게 된 원인은 전치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이기동 2001).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의미의 인지적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치사 on의 의미를 인지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첫째, 전치사 on을 중점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Langacker(1988)가 제안한 인지문법의 틀에 따라 전치사 on의 의미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전치사 on을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about, at, by, for, in, to, with 등과 원의미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의 차이점을 밝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의미에 맞게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의 전치사 on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전 속에서 전치사 on의 의미를 찾아보면 24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고, 매우 다양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2002)

에 실린 전치사 *on*의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 표면이나 물체에 접촉

Chad was asleep *on* the floor in a heap of blankets.

b. 어떤 시간

He's coming home *on* Wednesday.

c. 신체의 일부에 의한 지지

He propped himself up *on* an elbow.

d. 어떤 장소

The house was built *on* a beautiful piece of land.

e. 목록에 포함되어

The future of the charity will be one of the items *on* the agenda.

g. 입는 것

Come on, put your socks *on*, you'll be late for school.

h.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것

Hannah fixed her gray eyes *on* me once again.

i. 사건의 발생 또는 방송

Friends is *on* TV tonight.

j. 관하여

I have to write a report *on* the Civil War for history class.

k. 계속

They talked *on* through the night.

l. 교통수단 안으로

We got *on* the train in Oakland.

m. 특정한 기계나 수단의 사용

Much of the work is done *on* the computer.

n. 작동이나 사용중

Is the furnace *on*? I'm freezing.

o. 약물의 사용

She's *on* antibiotics for a mild eye infection.

p. 여행의 참가

He has been going *on* expeditions since he was eleven years old.

q. 어떤 단체의 일원

There are only three directors *on* the board.

r. 연이어 발생

On being made aware of the complaints, he informed the committee.

s. 살거나 일하기 위하여 무엇의 사용

Using a cave as shelter, the two men survived *on* wild berries and raw fish.

t.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사물을 보여주기 위해

The rough weather had little effect *on* the ship.

u. 비교

This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15million profit figure achieved last time.

v. 수행

Wait! She'll be *on* in a couple of seconds.

w. 누구에 의한 지불

Drink up! The next round's *on* me.

x.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Call us *on* 0800 0900000.

예문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치사 *on*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다양한 반면, 그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은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여, 각 의미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Herskovits(1982), 신태식(1985), 최현중(1987), 남윤희(1991), 김난주(1994), 권덕임(2002), 김병호(2002) 등은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 핵의미(geometrical nuclear meaning) 혹은 원형적인 핵의미로 설명하고, Lynn (1999)은 전치사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고, 선행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multi-word verbs를 만들어 낸다는 입장에서 전치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나, 이 역시 의미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전치사의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지의미론의 개념 및 전치사의 인지의미론적 분석방법에 관한 Langacker(1988)의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의어의 의미확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전치사에 관한 선행연구

Curme(1967)에 따르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른 낱말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치사는 문장 속의 두 요소를 연결시켜서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의미 기능을 하는 문법범주이며, 전치사가 연결해 주는 문장 속의 두 요소란 전치사구 속의 보어가 그 한 요소이고, 전치사구를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또 다른 요소가 된다(조경숙 1999). 본 연구에서도 전치사 on에 대해서 전치사구 속의 보어와 전치사구를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한 요소로 하여 그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¹⁾.

전치사에 대한 1980년대까지의 선행연구를 연대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치사 연구는 1950년대 이전에는 Jespersen(1924) 등에 의해서 통사론적,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의미적인 측면은 크게 다루어지지

1) 예를 들면 Chad was asleep on the floor에서 전치사구 on the floor속의 보어 floor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Chad was asleep와의 관계의 on의 의미를 연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않았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Lindkvist(1950) 등에 의해 전치사의 의미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전치사의 사전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양한 용례를 나열하면서 각 용례마다 상이한 의미를 부여했다(한충일 1985).

1960, 70년대에 들어서는 Cooper(1986)의 경우 전치사의 의미를 기능개념(function concept)과 관계개념(relation concept)의 복합개념으로 분석하고, 전자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특징을 뽑아 내주며, 후자는 기능가치(value of the functions)의 공간관계를 기술한다고 보았다. Bennett(1975)는 전치사의 의미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소(locative), 근원(source), 통로(path), 목표(goal)의 4가지 심층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처소서술(locative predicate)과 방향서술(directional predicate)을 구분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Bolinger(1977)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전치사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치사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전치사의 의미와는 달리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 형태에는 한 의미만 있으며,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1980년대의 Herskovits(1982)는 각 범주는 그 범주에 속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공통적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core)이나 원형적인 표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전치사의 원형적인 표본(핵의미: core meaning)은 기하학적 이상이라고 보았다. 즉, 원형적인 표본은 일반적으로 두 세 개의 이상적인 기하학적 물체(점, 선, 면, 방향 등)와의 관계로 보고, 기하학적 물체(핵의미)들은 이상화 과정에 의해 실제의 물체로 사상되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따라서 각 전치사의 하나의 기하학적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모델로 존재한다고 보고, 전치사의 ·용법과 의미는 기하학적 개념으로부터 방출되어 이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하학적 이상 즉, ‘핵의미(core meaning)’ 개념을 이용하여 전치사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전치사를 단순 기능어로 간주하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무시하던 것으로부터 전치사도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일정한 인지적 원리에 따라 분화되었음을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2.2. 인지 의미론의 개념

전치사를 핵의미와 같은 단일 의미로 설명하는 것에서(Herskovits 1982), 1980년대 중반 이후, Langacker(1988)를 중심으로 전치사 의미의 인지적 연관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본 장에서는 그의 언어에 대한 중심 주장을, 다음 장에서 전치사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Langacker(1988)는 언어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과정의 언급 없이 기술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문법구조는 원래부터 상징적인 것으로 개념내용을 구조화하고 관습적으로 상징하며, 언어의 개념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는가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결국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가 마음속에 있다고 보며,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 인지의미론의 중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임지룡 1999: 27).

- 첫째, 일상 언어는 인간 마음(mind)의 산물이다. 따라서 언어의 작용원리는 인지체계의 다른 원리, 예컨대, 지각추리, 이성, 상상력, 개념화 경험 등과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 둘째, 언어표현의 의미는 자율적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체계 안에서 개념적 내용의 조직을 환기함으로써 일어난다.

셋째, 언어의 많은 부분은 사람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화된다. 곧 마음과 몸은 깊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낱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이다. 곧 언어적 의미와 비언어적인 의미를 구분할 근거는 없다.

다섯째, 언어표현의 의미와 구조는 자의적이 아니라, 상당 부분 동기화되어 있다.

2.3. 전치사의 인지문법적 분석

Langacker(1988)는 위치가 결정되는 개체를 탄도체(trajector: tr)로, 참조점 역할을 하는 개체를 지표(landmark: lm)로 부르며 전치사의 의미를 탄도체-지표 관계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탄도체-지표관계에 대해, Taylor(1995: 131)는 전치사는 탄도체-지표관계의 많은 국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중요한 구별은 동적인 관계와 정적인 관계 사이의 구별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도체-지표관계가 정적이라면, 전치사는 탄도체의 위치를 지시한다.

둘째, 탄도체-지표관계가 목표에 도달한 동적인 관계인 경우는 탄도체 이동의 끝점이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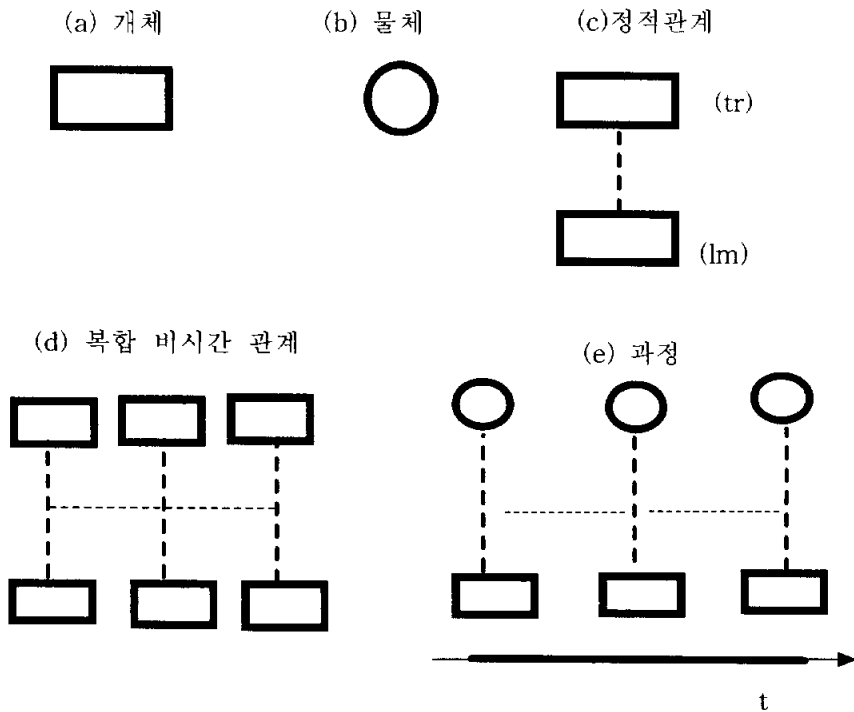
셋째, 탄도체-지표관계가 출발점을 떠나는 동적인 관계인 경우는 탄도체 이동의 출발점이 부각된다.

넷째, 탄도체-지표관계가 경로상에 있는 동적인 관계인 경우는 탄도체가 이동하며 남기는 탄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시한다.

그리고 탄도체와 지표의 모양, 크기, 차원이라는 측면과,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접촉성 여부,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거리, 지표와 관련한 탄도체의 방위(예: 위/아래, 안/밖) 등등의 차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탄도체-지표관계의 매우 특이한, 언어 특징적인 어떤 측면을 부호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탄도체-지표관계의 모양, 크기, 동적관계 등에 관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on이 쓰인 문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Langacker(1988)는 탄도체-지표 관계를²⁾ 다음과 같은 표기법에 따라서 설명한다. 탄도체-지표 관계는 단순한 비시간적(또는 상태) 관계를 두 개나 그 이상의 마음속의 개체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모습으로 드러낸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물건이나 다른 관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비시간 관계는 요약형식으로 주사된 상태 관계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한 과정은 관계 형상을 모습으로 드러내는데 있어서 복합적 비시간 관계에 비교될 수 있으나, 다른 특성도 가진다. 그 내용은 (i) 구성요소 상태는 시간 경과와 함께 분포되어 있다, (ii) 이러한 상태는 연속적으로 주사된다, (iii) 탄도체는 언제나 물체이지 관계가 아니다. <그림 1e>의 화살표는 마음속의 시간을 가리키고, 이 화살표와 병행하는 굵은 선은 구성요소 상태가 처리 시간과 함께 연속적으로 주사됨을 가리킨다. (iii)의 제약 외에, 관계 서술은 탄도체와 제일 지표를 위해서 물건이나 관계의 어떤 조합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2) 탄도체는 두 물체가 맺는 관계서술(relational predication)에서 가장 두드러진 참여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표 또는 이정표가 된다. 가령 문장 'The boy kicked the ball'에서 주어는 탄도체가 되고 목적어는 지표가 된다(김일곤 2000). 한편 인지문법에서는 물체(thing)를 굵은 원(circle)으로 나타낸다. 보통 두 개의 물체가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에는 움직이는 위쪽의 물체가 탄도체가 되고, 목적지에 해당하는 아래쪽의 물체는 지표, 이정표가 된다(Langacker 1987).



<그림 1>

Langacker(1988)는 위의 탄도체-지표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한다.

- (2) a. The plane is *above* the clouds.
 b. She left home *before* I arrived.
 c. The children played *in* the park.
 d. The milk finally *turned* sour.

(2a)에서 *above*의 탄도체와 지표는 물체이다. (2b)에서 *before*의 탄도체와 지표는 모두 관계이다. (2c)에서 *in*의 탄도체와 지표는 명사이다. (2d)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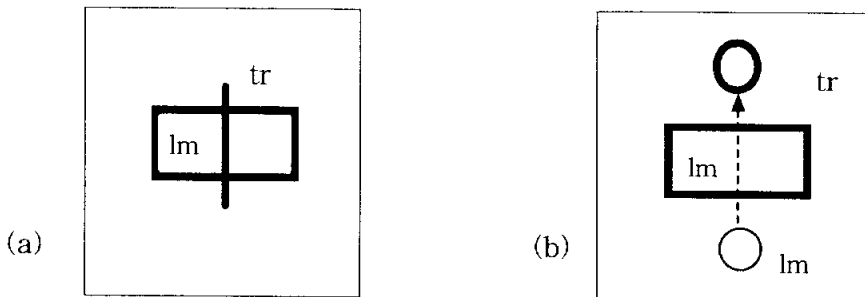
turn의 탄도체는 명사이지만 지표는 상태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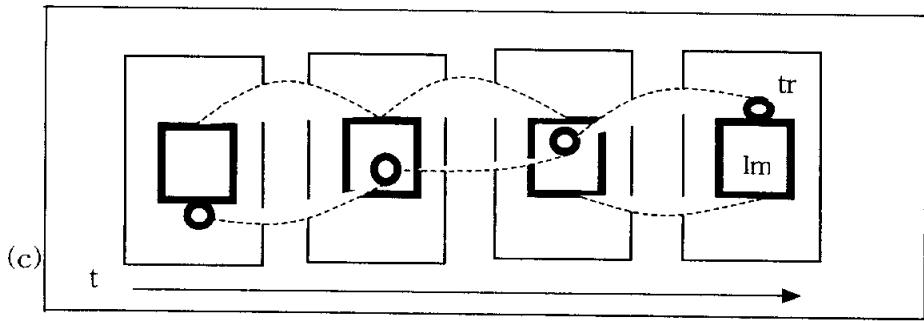
Langacker(1988)는 across를 예로 탄도체-지표관계를 다음과 설명한다.

(3) a. There is a tree *across* the river.

b. A hiker waded *across* the river.

위 예문(3a,b)에 나타난 across의 관습적으로 고정된 세 가지 의미가 아래 <그림 2>에 예시되어 있다. 위 예문 (3a)는 <그림 2a> (나무가 강을 가로 질러 놓여있다.)와 <그림 2b>에 표시된 뜻(강 건너에 나무가 있다.)을 다 가질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그림 2a>에서 탄도체 (이 경우는 the tree)는 제일 지표(강)의 한 쪽에서 다른 쪽에 이르는 길의 모든 점을 동시에 차지한다. 반면 <그림 2b>에서는 탄도체는 이러한 길의 마지막 점만 차지한다. 다른 한 점은 참조점으로 기능하는 덜 현저한 이차적인 지표가 된다. <그림 2a>와 <그림 2b>에 묘사된 서술은 모든 비시간적인 관계이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나타난 관계가 하나의 형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림 2>

예문 (3b)에 해당하는 <그림 2c>는 위 예문 (3a)를 나타내는 <그림 2a, b>와는 다르다. 여기서 탄도체는 지표의 한 쪽에서 다른 쪽에 이르는 길의 모든 점을 차지하나, 시간의 경과에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습으로 드러난 부분은 수 없이 많은 서로 다른 형상을 만드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이 도식에 나타나 있다. across의 이 뜻은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비시간 관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ngacker(1988)에 의해서 제안된 분석방법에 따라 탄도체-지표관계로 전치사 on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의미확장의 양상

다의어의 의미확장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인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에서 파생적이고 전이된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확장은 기존의 낱말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인접성 인지능력인 환유(metonymy)와 대상과 대상간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즉, 유사성의 인지능력인 은유(metaphor)로³⁾ 기존의 낱말의 대상

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임지룡 1999). 이런 의미확장의 양상을 임지룡(1999: 240-242)은 개념영역이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차례로 나아간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사람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에게 사용된 낱말을 이용하여 짐승, 생물, 무생물로 확장한다고 한다.

둘째,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구체성’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상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밝다’의 경우를 보면 ‘빛’을 중심으로 ‘색 → 표정 → 분위기 → 눈 · 귀 → 사리’의 밝음으로 확장된다.

셋째, <공간 → 시간 → 추상>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공간’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짧다’라는 낱말은 ‘길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물리적 공간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간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다음의 ‘~에 있다’에서는 세 가지

-
- 3) 전치사와 같은 다의성을 나타내는 언어영역에는 은유에 의한 확장이 사용된다. Quirk, et al.(1972)은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추상적인 의미는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전치사의 공간적 용법과 명확하게 관련된다 한다. 아래 예문 (ia,b,c)에서 은유적 용법의 확장을 보면 (ia)는 순수한 문자적용법이고, (ib,c)에서는 전치사 in이 은유적 용법이다(Quirk, et al. 1972).

(i) a. *in* shallow water. b. *in* difficulties. c. *in* a spot.

존재방식이 이 과정에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서재
에/ 삼성라이온즈/ 내 마음속에 있다.”

다섯째,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의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의 기준점은 ‘일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컨대, 위의 “짧다”에서 “연필이 짧다”는 글자 그대로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경험이 짧다”는 추상적인 비유표현이며, “입이 짧다”는 관용표현이 된다.

여섯째, <내용어 → 기능어>의 확장이다.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어’(content word)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미 ‘표백화’(semantic bleaching)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말에서 보조용언이나, 조사 ‘부터’, ‘조차’ 등은 내용어에서 기능어로의 의미 표백화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의 인지 원리는 ‘사람 · 구체성 · 공간 · 물리적 · 일반성 · 내용어’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미에서 의미확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치사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사람으로 그 의미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이 전치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on의 인지 의미론적 분석

3.1. 표면과 접촉

Langacker(1988)는 전치사의 의미를 정적관계,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치사 on의 기본적인 의미 표면과 접촉의⁴⁾ 의미를⁵⁾ 분석하기로 한다.

3.1.1. 정적 관계

정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영역 내에서 두 물체 사이의 관계가 동시에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적인 형상으로 개념화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탄도체와 지표의 움직임이나 상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정지 시점에 이르면 양자가 상호관계(inter-connection)를 형성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상화하는 것이다(Langacker 1988).

정적인 관계에서 전치사의 기본적 의미는 Sweet(1955)에 따르면 공간적인 의미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치사 on의 기본의미도 공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치사 on의 공간적인 의미를 Herskovits(1982)는 핵의미라는 관점에서 ‘어떤 물체의 위나 표면을 Y로, 그 위나 표면을 차지하는 물체를

4) Quirk, et al.(1972)은 전치사 on이 처소를 1차원과 2차원, 즉 선이나 표면을 나타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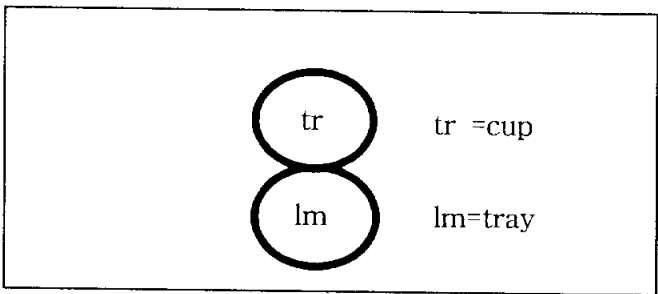
5) ‘표면과 접촉’이란 의미를 풀어쓰면 ‘표면에 붙어있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설명할 때는 ‘접촉’이란 말보다는 ‘붙어있다’는 말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촉’과 ‘붙어있다’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X'라고 정의했다. 이기동(2001)은 on의 기본의미는 '탄도체 X가 지표 Y의 표면 위에 닿아 있는 경우'라 한다. 아래 예문 (4)에서 탄도체 cup은 지표 tray의 표면에 접촉되어 있음을 on이 나타내고 있다.

(4) The cup is *on* the tray.

김일곤(2000)도 전치사 on의 기본적인 의미를 '공간에서 두 물체가 접촉하여 이루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공간에서의 직접접촉'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공간에서의 직접접촉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시점에서의 정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on은 이런 정지된 관계를 묘사한다고 본다. 이창희(2001)는 전치사 on의 의미가 '표면에서 활동하지 않는 접촉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전치사 on의 기본 의미에 대한 Herskovits(1982), 김일곤(2000), 이기동(2001), 이창희(2001)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위 예문 (4)는 Langacker(1988)의 정적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래 <그림 3>과 같이 탄도체 cup이 지표 tray와 같은 물체 위에 맞닿아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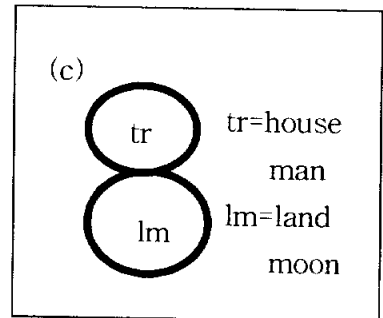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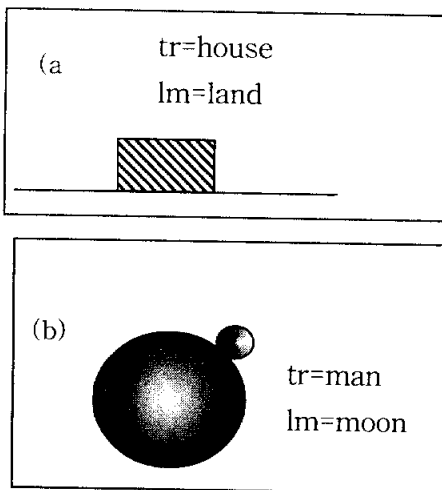


<그림 3>

먼저 공간적인 지표의 확대의 경우를 보면 위 예문 (4)에서 tray와 같은 인위적인 물건에서 아래 예문 (5a,b)에서와 같은 넓따란 공간이나 장소, 예문 (5c)에서와 같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도 지표 구실을 할 수 있다(이기동 2001).

- (5) a. The house was built *on* a beautiful piece of land.
 b. Who was the first man *on* the moon?
 c. The sun is *on* the horizon.

위 예문 (5a,b)에서 지표가 beautiful piece나 moon과 같은 자연물이다. 이것은 탄도체가 지표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는 인지적인 영상이 위 예문 (5a)의 경우는 아래 <그림 4a>와 같이, 예문 (5b)는 <그림 4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4c>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위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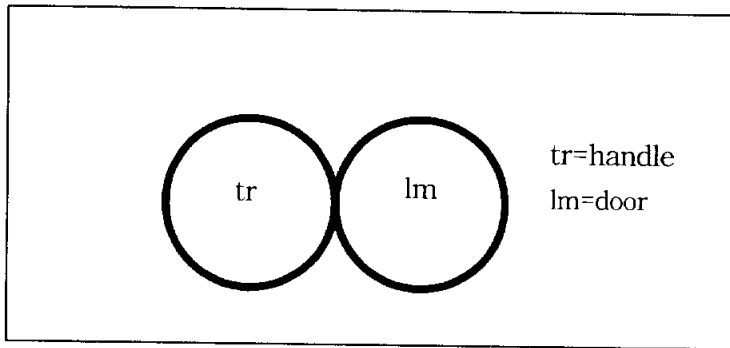


<그림 4>

지금까지는 전치사 *on*의 의미가 탄도체가 지표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탄도체가 지표의 옆과 접촉하고 있는 경우⁶⁾(이기동 2001)에도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There is a handle *on* the door.

위 예문 (6)에서는 탄도체 *handle*이 수직적 지표 *door*와 같은 표면에 붙어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표면과 접촉이란 의미는 윗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탄도체가 지표 밑에 닿아 있는 경우⁷⁾이다(이기동 2001). 이 경우는 표면 위에 붙어 있는 정상적인 *on*의 의미를 반대로 보는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김일곤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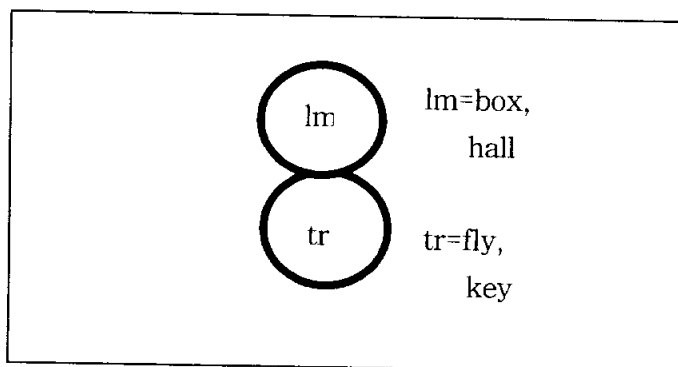
(7) a. There is a fly *on* the ceiling.

6) 이런 형태를 김일곤(2000)은 수직적 좌우관계의 접촉이라고 한다.

7) 이 경우를 김일곤(2000)은 탄도체와 지표와 상호간의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서 접촉하는 관계로, '역전된 정적관계'라고 부른다.

b. The key is hanging *on* a hook in the hall.

위 예문 (7a)의 경우에 *on*이 탄도체 *fly*가 지표 *ceiling*에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7b)의 경우는 탄도체 *key*가 지표 *hall*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김일곤(2000)은 아래 <그림 6>으로 나타낸다.



<그림 6>

3.1.2.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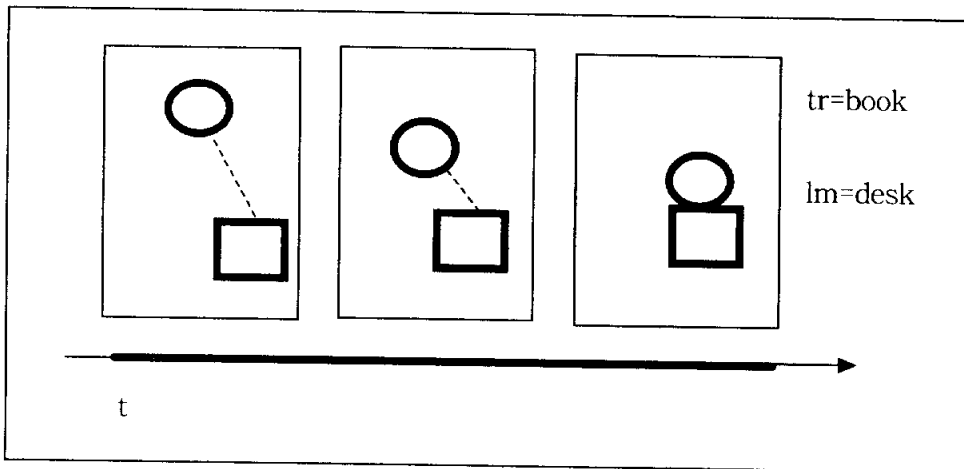
정적인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과정 (process), 또는 복합정적관계(complex stative rel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 (Langacker 1988).

다음 예문(8)에서 전치사 *on*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면과 접촉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8) a. Alanis dropped her books *on* the desk.

b. We could hear the rain falling *on* the roof.

표면과 접촉이란 의미의 전치사 on이 표면으로 떨어지는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on이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는 탄도체와 지표가 한 시점에서 접촉하고 있는 정지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탄도체가 시간의 궤적을 따라(temporally) 움직인 결과 지표에 붙는 상황을 묘사한다(김일곤 2000). 예문 (8a,b)는 탄도체 book, rain이 지표 desk, roof의 표면 위에 놓여지거나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 (8a)를 과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이 떨어져서 붙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7>하단에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그림 7>

그러나 on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면, <그림 7>은 탄도체와 지표가 이루는 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의 정적관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위 예문 (8a)에서는 두 세트의 탄도체-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세트에는 탄도체 Alanis와 지표 books가 포함되고, 두 번째 세트에는 탄도체 book과 지표 desk가 포함된다. 따라서 book은 한 세트에서는 지표로 탄도체 Alanis의 행위의 대상

이 되고, 또 다른 한 세트에서는 탄도체가 되어 다른 지표 desk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관계는 결국 'Her books are *on* the desk'라는 표현으로 현시화 될 수 있고, 이것은 위 예문 (4)의 *on*처럼 앞에서 본 <그림 3>의 *on*에 의해 그 의미가 묘사된다고 할 수 있다(김일곤 2000).

3.1.3. 표면과 접촉의 제 양상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탄도체-지표관계의 매우 특이한, 언어 특정한 측면을 부호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Taylor 1995), 표면과 접촉이란 의미의 전치사 *on*도 여러 측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측면의 위치형상에 전치사가 윤곽을 부여하지만, 확대된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형상에서도 전치사는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것에 윤곽을 부여한다⁸⁾ (Langacker 1988). 즉, 전치사 *on*은 '표면과 접촉'을 나타낸다. 이제부터는 표면과 접촉관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기로 한다.

지표가 되는 물체는 표면을 가진 사람, 팔, 손가락이 될 수 있다.

- (9) a. She had *on* a simple silk dress.
- b. He had a hat *on*, but not much else.
- c. She was wearing a ring *on* the third finger of her left hand.

(9a)에서는 탄도체 dress가 지표 she의 표면에 붙어있음을 나타낸다. (9b)

8) Langacker(1988)는 아래 예문 (i a b)를 들면서 전치사는 하나의 위치형상에 꺾을 부여하지만 확대된 공간통로를 규정하는 일련의 형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것에 윤곽을 부여한다고 아래 두 예문을 비교한다. 결국 예문 (i a)는 (i b)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한다.

- (i) a. The prisoner ran to the fence.
- b. The prisoner is already to the fence.

에서는 탄도체 hat이 지표 he의 머리에 붙어있다. (9c)에서는 탄도체 ring이 지표 third finger에 붙어있다. 이것은 on이 ‘~ 표면에 붙어 있는’에서 ‘~의 표면을 덮고 있는’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옷이나 보석 등을 착용하고 있거나, 몸의 일부를 덮고 있는 것을 진술할 때, 입고, 끼고, 쓰는 것(wearing)을 나타낸다.

탄도체가 지표 계획이나 목록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10) a. The future of the charity will be one of the items *on* the agenda.

b. My name's not *on* the list of candidate, why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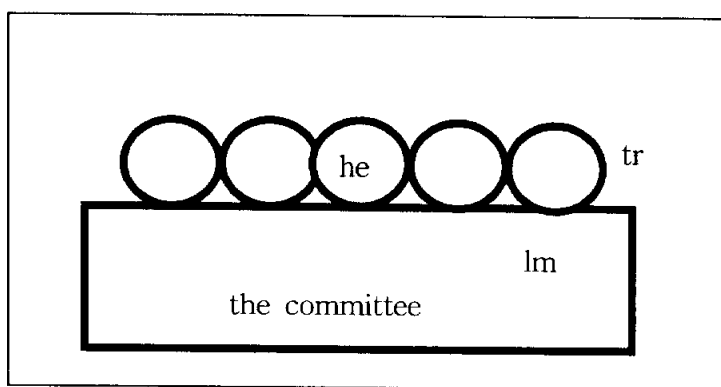
(10a)에서 탄도체 item가 지표 agenda에 붙어 있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지표 agenda는 종지와 같은 물체일 가능성이 많고, 이는 종지의 ‘표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탄도체 item이 지표 agenda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10b)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표 list에 탄도체 name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탄도체가 위원회나 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상의 것으로 지표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표의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확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탄도체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지표가 위원회나 배심원인 경우에 김일곤(2000)은 전치사 on은 구체적인 물체인 탄도체가 추상적인 지표와 공간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의 종사 및 활동으로서의 봉사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통하여 접촉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음 예문 (11)을 들어 설명을 한다.

(11) a. He is *on* the committee.

b. He served *on* a jury.

(11)에서 *on*은 탄도체인 주어 *he*가 지표인 위원회나 배심원에 종사했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아래 <그림 8>과 같이 나타낸다(김일곤 2000).



<그림 8>

반면에 이기동(2001)은 참모진이나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단위를 이룬다면, 영어에서는 이러한 단위의 구성원은 이 단위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서 다음 예문 (12)를 들고 있다.

(12) Are you *on* the board of management?

이렇게 지표가 위원회, 팀과 같이 개념적인 경우에도 아래 예문 (13)에서 보듯이 *on*은 붙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 a. There are only three directors *on* the board.

b. Mr. Cook was strongly criticized by some of the Senators *on* the committee.

(13a)는 탄도체 director가 지표 board에 붙어 있다. (13b)에서는 탄도체 Senator가 지표 committee에 붙어있는 것으로 의미가 추상적인 단체에 붙어있다는 말이 되고 이는 그 단체와 떼 수 없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의 ‘일원’임을 나타낸다.

전차사 *on*은 교통수단이나 방법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14) a. They traveled *on* horseback in those days.

b. He went there *on* foot.

위 예문 (14a)에서 *on* horseback, (14b)에서 *on* foot은 여행이나 산책의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역시 직접접촉의 인지적인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14a)에서 말을 타고 가는 여행이지만, 탄도체인 여행자는 이정표인 ‘말의 등’에 직접 닿은 상태로 여행을 하고 있다. (14b)의 *on* foo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on* foot은 걷는 자인 탄도체의 신체의 일부인 발이 이정표인 땅에 닿아있는 것이므로 직접접촉이 확장된 예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on*대신에 *by*가 주로 쓰인다(김일곤 2000).

반면에 이기동(2001)은 버스, 배, 기차와 같이 비교적 크게 생각되는 교통수단은 아래 예문 (15)를 들면서, 사람이 이들 교통수단에 ‘닿아서 의존’하는 관계가 포착되어 *on*이 쓰인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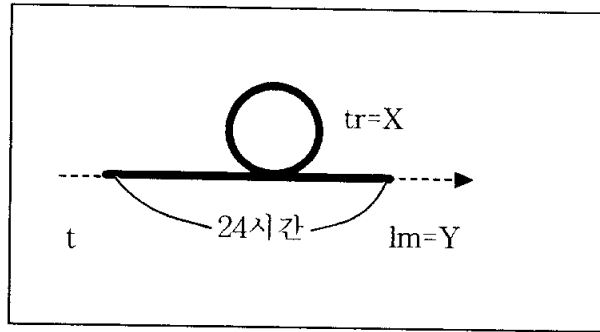
- (15) a. The luggage is still *on* the plane.
 b. The crew are *on* the boat.
 c. We travelled *on* the train.

교통수단 가운데 표면에 붙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는 bus, boat, train 등과 같은 대형교통수단에만 *on*이 사용되는 점, 위 예문 (14a,b)에서 *on foot*, *on horseback*에 관사가 없는 점으로 보아, 발이나, 말 등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걸거나, 말을 타는 기능에 붙어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일곤(2000)의 주장과 같이 직접접촉의 확장으로 *on*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기동(2001) 역시도 닿아서 의존한다고 하여 접촉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는 전치사 *on*의 공간적인 의미가 시간적인 표현에 적용되면 지표 Y라는 시간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탄도체 X의 활동,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 때 시간은 주로 날(day)을 의미한다(Quirk, et al. 1972).

- (16) a. He arrived *on* Monday.
 b. She was born *on* the 15th of May.

예문 (16a)에서 탄도체 arrive와 같은 사건이 지표 Monday에 붙어 있다. 그리고 (16b)에서는 탄도체 출생과 같은 사건이 15th란 날에 붙어 있다. 그리고 지표 Monday와 15th는 하루의 24시간이다. 위의 (16a,b)에서 *on*이 쓰인 것은 도착과 출생이 어느 하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아래 <그림 9>와 같이 어떤 평면 위에 조그만 한 물건이 놓여 있는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이기동 2001).



<그림 9>

3.2. 연속

공간적인 측면에서 탄도체가 지표에 붙어 있다는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사건 A가 사건 B에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김은일 2000). 이 경우는 어떤 사건이 '연속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행동이 이어지면 같은 시간대에서 두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이 말은 '이어서', '즉시' 등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연속'을 행위에 적용하면 어떤 행위가 같은 반복되는 행위에 붙어 있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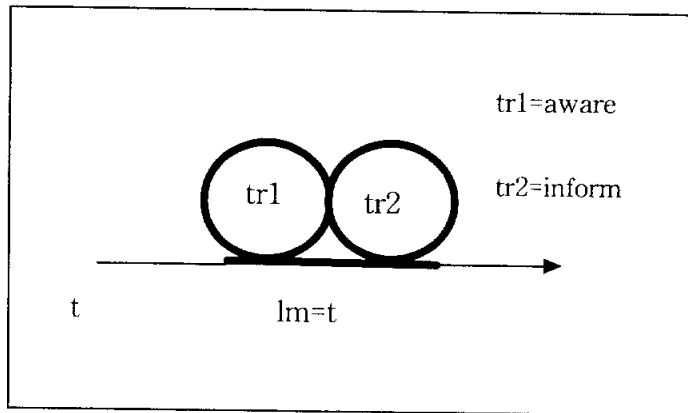
3.2.1. 동시

먼저 탄도체인 서로 다른 행위가 지표 동 시간대에 행해지는 경우를 보면, 공간적 접촉에서 사건의 추상적 접촉으로 접촉의 의미가 확장되어, 접촉이란 의미가 같은 시간대에 두 행위가 접해 있는 '동시'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7) a. *On* being made aware of the complaints, he informed the committee.

b. Report to the reception desk *on* arrival.

위 예문 (17a,b)에서 탄도체 inform, report라는 동작이 지표 aware, arrival에 붙어 있다. 즉,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에 붙어서 혹은 이어서 즉각적으로 따르거나 동시에 발생할 때 아래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은유적으로 탄도체인 어떤 물건이 지표인 다른 물체에 붙어 있는 것과 사건(tr1)과 사건(tr2)이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lm)에 붙어있는 것이 두 관계의 개념적인 동일성이 포착되어 ‘동시’라는 의미의 ‘즉시’, ‘하자마자’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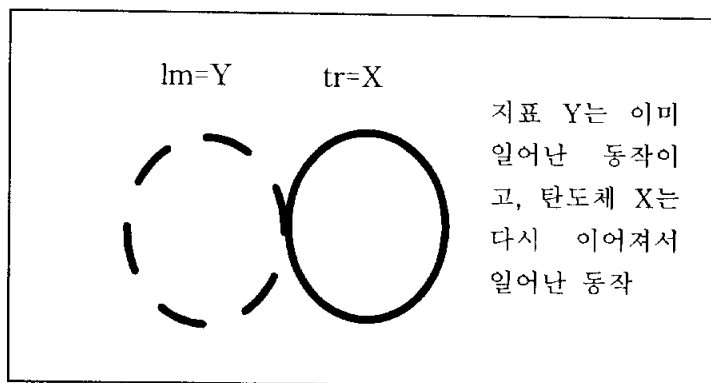
3.2.2. 계속

어떤 동일한 동작(tr1)이 다음 동작(tr2)에 붙어서 같은 시간대 위에 발생하는 경우에, 이기동(2001)은 어떤 동작(X)을 하다가 얼마쯤 쉬고 난 다

음 같은 동작(X')을 이어서 한다면, 이는 앞서 한 동작과 쉬고 나서 하는 동작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탄도체 X와 탄도체 X'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작 자체는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작의 계속을 나타낸다면 다음 예문(18)을 들어 설명을 한다.

- (18) a. He spent a day there and went *on* to the next town.
 b. Go *on*. Don't stop here.
 c. He urged his tired horse *on*.

(18a)에서 지표 Y는 go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라는 장소를 떠나 B에 이르러 하루를 쉬고 B를 떠나 C로 가는 경우, 가는 동작(going)만을 생각하면 B에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b)도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표현에는 이 말이 발화되기까지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go on은 go on going의 뜻으로 풀이해도 된다. 따라서 이것은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기동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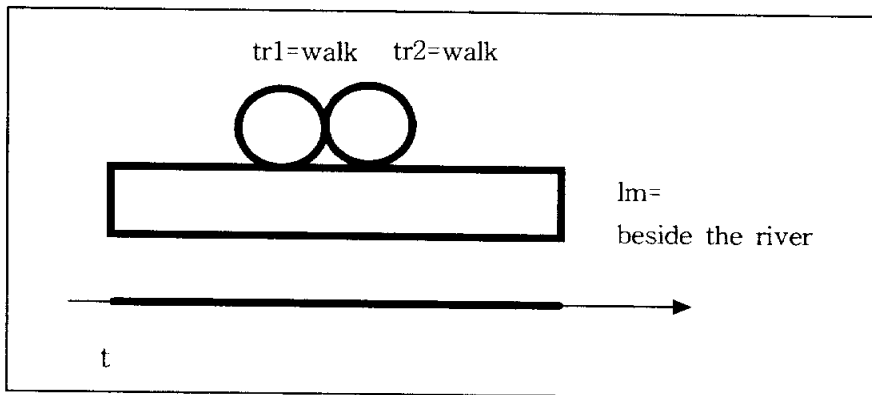


<그림 11>

지표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길이나, 경로도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on의 의미는 ‘계속(continue)’이란 의미이다.

(19) They walked *on* beside the river to a picnic spot they knew.

위 예문 (19)에서 탄도체 they의 걷는 행위가 지표 beside the river 위를 picnic spot에 닿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동안에 계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이때 on은 ‘계속’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20) When I didn't know the answer, the teacher kindly moved *on* to the next students.

위 예문 (20)에서는 탄도체 teacher의 행위가 지표 next student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on이 나타낸다. 따라서 on이 ‘계속’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탄도체가 사람의 행위와 의미적인 유사성을 보이는 모임, 이야기 등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되는데 다음 예문 (21)을 보자.

(21) a. The meeting went *on* a lot longer than I expected.

b. They talked *on* through the night.

위 예문 (21a,b)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한다. 즉, (21a)에서는 탄도체 meeting이 계속해서 지표 시간이라는 길 위를 계속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길 위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과 개념적인 유사성이 포착되어 그 모임이 계속되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21b)에서는 탄도체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지표 특정한 밤과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3.3. 연결

탄도체 물, 전기, 라디오 등이 움직이거나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인 지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도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꼭지가 수원과 연결이 될 때 가능하고, 전깃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전등이 전기선이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라디오가 켜져 있다는 것도 이 라디오의 부속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이기동 2001). 이 경우에는 단순히 물체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에서 접촉되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로 확대되어 ‘연결’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원천과 연결되었다는 의미는 기계나 장치의 경우에는 ‘작동’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작동하는 것이 사건, 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진행’이란 의미가 된다.

3.3.1. 작동

탄도체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원과 접촉한 상황을 이기동(2001)은 원천과 연결이라며, 주어진 물건의 기능적 조합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2) a. The water is *on*.

b. The light are *on*.

c. The radio is *on*.

위 예문 (22a,b,c)에 쓰인 탄도체 물, 전기, 라디오가 움직이거나 흐르기 위해서는 지표인 어떤 근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 문장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거의 명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기동 2001). 이 때 *on*의 의미는 지표인 근원과의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각각의 의미는 ‘나온다’, ‘켜져 있다’는 의미이다.

연결은 전화선에 사람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화’를 의미한다.

(23) Wait a minute, Mom - I'll put Joe *on*.

위 예문 (23)에서는 탄도체 Joe를 지표 Mom에 (전화)를 연결한다는 의미

에서 은유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3.2. 진행

사건의 경우에는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의미의 *on*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진행’이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24) There's a wedding *on* now at the church.

예문 (24)에서 탄도체 *wedding*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으로, 즉 ‘진행되고 있다’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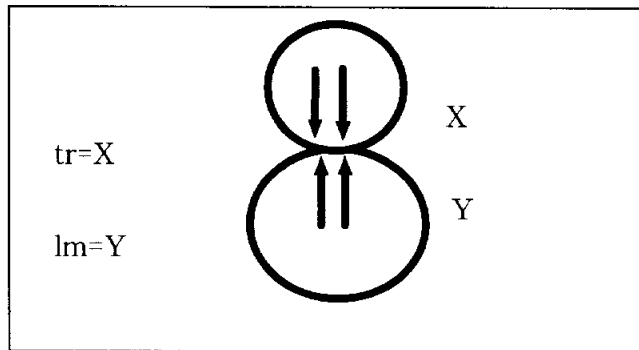
3.4. 지지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하고 있다는 말은, 탄도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지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표가 탄도체를 받치고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Herskovits 1986). 이렇게 받치는 경우, 지표는 탄도체의 바탕이나 배경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지(support)’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지’란 의미는 탄도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되고, 근거나 이유가 된다.

3.4.1. 의존

탄도체가 지표 위에 있는 관계는 탄도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표가 없으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체가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은일 2000). 다시 말하면, 이런 의존관계는 지표 Y는 탄도체 X를 떠받쳐야하고, 또 이런 지표 Y가 탄도체 X를 떠받친다는 것은 탄도체 X가 지표 Y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고, 다음 <그림 13>과 같이 의존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이기동 2001).



<그림 13>

다음 예문 (25)는 탄도체가 지표에 ‘의존’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 (25) a. The two men survived *on* wild berries and raw fish.
 b. He lives *on* a diet of coffee and cigarettes.
 c. He was just managing to survive *on* a small student grant.
 d. This video recorder runs *on* batteries.
 e. Why can't they make a car that runs *on* water?

위 예문 (25a,b,c,d,e)에서 *on*은 ‘의존’이란 의미를 나타내는데, (25a)에서는 탄도체 *men*이 지표 *wild berries and raw fish*와 같은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남았다. (25b)에서는 탄도체 *he*가 지표 *coffee*와 *cigarette*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이는 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만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나타낸다. (25c)에서는 탄도체 he가 살기 위해서 지표 grant와 같은 돈에 ‘의존’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25d,e)에서는 탄도체가 물체이며 지표도 물체인 경우인데, (25d)의 경우에는 탄도체 recorder가 지표 batteries에 ‘의존’해서 (25e)에서는 탄도체 car가 지표 water에 ‘의존’해서 운행된다는 의미를 on이 나타낸다.

3.4.2. 근거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존한다’는 공간적인 개념인 ‘의존’은 어떤 사실이나 행동을 뒷받침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사실과 같은 것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는 ‘근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결국 이는 어떤 사실이나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의미가 된다.

이기동(2001)은 ‘탄도체 X가 지표 Y를 받치고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지표가 탄도체의 ‘이유나 근거’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한다.

(26) a. We congratulated her *on* her success.

b. He prides himself *on* his good English.

(26a)에서 탄도체는 congratulate이고 지표는 success이다. 즉 축하와 성공이 이어져 있음을 on이 나타내고, 이것은 세상일의 지식으로 보면 성공이 축하의 원인이나 바탕으로 풀이된다. (26b)에서 pride도 English와 연결되어 있음을 on이 나타내는데, 이것은 훌륭한 영어 때문에 뽐낸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비교의 대상으로도 on을 쓴다.

(27) This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15million profit figure achieved last time.

위 예문 (27)에서 탄도체 improvement를 지표 \$15million profit figure에 근거를 두고 비교한다는 말이 된다. 즉,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비교하는 ‘근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4.3. 관련

어떤 사실이나 개념, 주제에 ‘근거’하여 책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근거’라는 의미에서 ‘관련된’,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김은일 (2000)은 아래 예문 (28)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8) a. He wrote a book *on* his experiences 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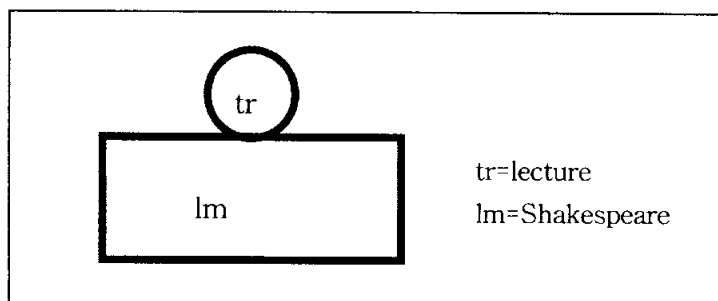
b. She speaks *on* international affairs.

위 예문 (28a)를 해석해보면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에 의존해서 책을 썼다’가 되는데, ‘그의 경험에 의존해서 책을 썼다’라는 말은 그의 경험들이 책을 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그 책은 그의 경험들에 관한 내용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의존의 의미 *on*이 새로운 의미 ‘~에 관해(관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김은일 2000). 따라서 (28b)에서는 ‘~에 관한’ 연설이 된다.

이런 ‘관련’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에 대해서 김일곤(2000)은 *on*이 추상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면서 아래 예문 (29)를 들어 설명한다.

- (29) a. He is going to write a new book *on* the new millennium.
 b. He gave a lecture *on* Shakespeare.

예문 (29a,b)와 같이, 일정한 저술이나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탄도체는 일정한 저술, 강연 등이 되고 지표는 그 저술, 강연의 밑바탕이 된다. (29a)에서 book은 탄도체이고, millennium은 지표이다. 탄도체 book은 지표 millennium과 공간적으로 직접 접촉한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이 접촉은 새로운 책이 새 천년에 관한 내용의 책이 되도록 기초를 놓아주는 셈이다. (29b)를 예로 하여 이 과정을 그림으로 영상화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일곤 2000).



<그림 14>

김은일(2000)과 김일곤(2000)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예문 (28a,b)와 (29a, b)에서의 *on*은 탄도체가 지표에 근거 혹은 바탕으로 ‘관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치사 *on*의 기본적인 의미 ‘표면과 접촉’이란 의미에서 ‘연속’, ‘연결’ 그리고 ‘지지’란 의미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5. 다른 전치사와 의미 차이 비교

여기서는 전치사 *on*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전치사와 원형적인 의미(prototype meaning)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하고자한다.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in*, *at*, *by*와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in*, *at*과 방향이란 의미에서 *in*, *at*, *to*와, 원인이란 의미에서 *at*, *for*, *with*와 관련이란 의미에서 *about*과 의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3.5.1. 공간이란 의미에서 *in*, *at*, *by*와 비교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on*은 어떤 형체의 선이나 어떤 물체의 표면에 관여하는 차원임을 의미하며, *in*은⁹⁾ 1, 2, 3차원의 어떤 영역, 입체의 내부에 관여하는 차원(Herskovits 1986)임을 의미하고, 그리고 *at*은¹⁰⁾ 사물이나 사건에 관여하는 차원이 무차원 즉, 점(point)으로 인식(Quirk, et al. 1972)될 수 있다. 이런 전치사 *on*, *in*, *at*의 차이는 같은 상황인 경우에도 어느 전치사를 쓰는가에 따라 각각의 전치사의 의미의 차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30) a. There is a man *on* the po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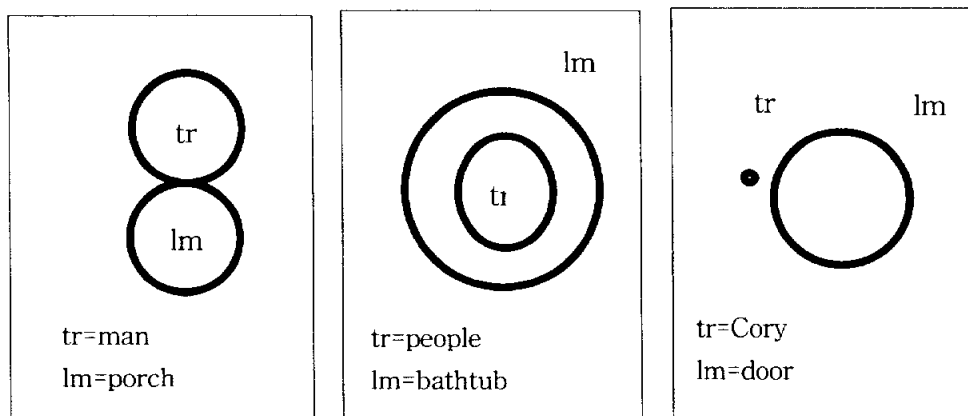
b. There are fourteen people sitting *in* your bathtub.

9) Quark, et al(1972)은 *in*이 처소를 2차원과 3차원, 즉 영역이나 용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erskovits(1986)의 입장에 따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같이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in*은 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10) Herskovits(1986)는 *at*의 핵심의미를 지표 Y를 한 점(a point)으로 인식하여 탄도체 X와 지표 Y가 일치(coincide)하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c. That might be Cory *at* the door.

(30a)에서 on은 탄도체 man이 지표 porch의 ‘표면에 붙어 있음’을 나타내고 아래 <그림 15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0b)에서 in은 탄도체 people이 지표 bathtub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그림 15b>와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리고 (30c)에서 at은 탄도체 Cory가 지표 door의 ‘어떤 지점’에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그림 15c>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on의 관계

(b) in의 관계

(c) at의 관계

<그림 15>

지표가 지면인 경우에 on과 in의¹¹⁾ 그 공간적인 의미의 차이를 다음 예

11) Taylor(1995)는 in은 아래 예문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ia)에서는 탄도체 water가 지표 vase의 안쪽 지역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ib)에서는 탄도체 crack가 지표 vase의 표면 속에 위치해 있다. (ic)에서는 탄도체 flower가 지표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됨으로써 떠받침을 받거나 제대로 잡혀있다. 그리고 in의 세 가지 사용이 in의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예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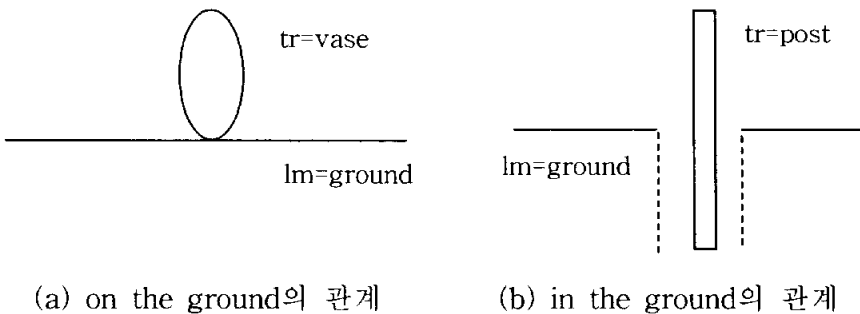
- (i) a. The water *in* the vase.
- b. The crack *in* the vase.
- c. The flower *in* the vase.

문 (31)은 보여준다.

(31) a. They put a vase *on* the ground.

b. They put a post *in* the ground.

(31a)에서는 탄도체 vase를 지표 the ground의 표면 위에 놓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31b)는 탄도체 post를 지표 the ground의 안에 세웠다는 뜻이다. 이 때 ‘안’의 개념은 땅속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히 땅속으로 탄도체 post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안’이라는 의미가 적용된다. (31a)는 아래 <그림 16a>는 on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6b>는 in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in의 개념은 어떤 ‘공간 안’이라는 영상과 ‘땅속’이란 영상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16>은 on은 표면에 접촉이란 면에서, in은 ‘안’이라는 면에서 앞에서 본 <그림 15a,b>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림 16>

지표가 동일한 잔디에 대해서도 on과 in¹²⁾ 어느 것을 사용에 따라 그 의

미는 달라진다.

(32) a. She is sitting *on* the grass.

b. She is sitting *in* the grass.

(32a)에서는 풀의 길이가 짧은 잔디밭의 표면을 가리키나, (32b)는 풀의 길이가 긴 잔디밭에서 풀 속에 앉아 있는 광경을 연상시킨다(Quirk, et al. 1985). (32a,b)에서 사용된 *on* ‘~의 표면에 붙은’과 ‘~의 안’이라는 *in*의 본래의 의미의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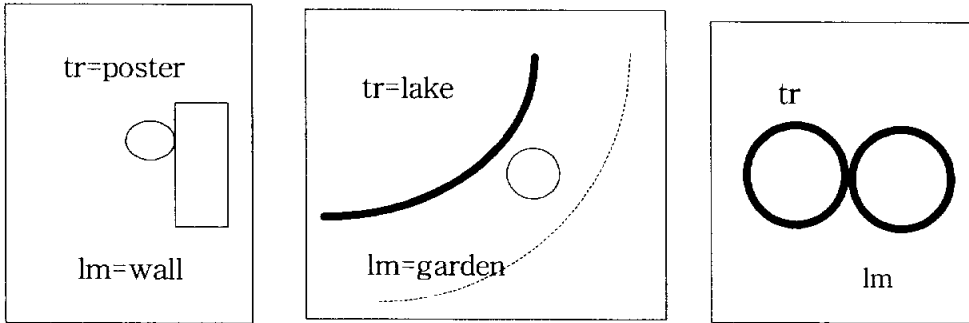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전치사 *on*, *by*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on*을 쓰는 경우에는 여전히 붙어있다는 의미가 남아 있다. *on*이 지표 Y의 표면 위가 아닌 옆에 붙어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래 예문 (33a)와 같이 탄도체 poster가 높이로 쓰인 지표 wall에 닿아 있는 관계도 *on*으로 표현되고 이는 아래 <그림17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b)에서와 같이 높이가 없는 개체가 지표로 쓰이면, 지표 lake에 탄도체 garden이 지표의 lake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관계를 *on*이 나타낸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7b>와 같다(이기동 2001). <그림 17a,b>는 <그림 17c>와 같이 기본적인 붙어 있는 관계로 환원될 수 있다.

12) *on*과 *in*의 원의미적인 차이는 아래 예문 (i a,b)와 (ii a,b)에서 보듯이 거리나 신체부위를 표현할 때도 그 차이를 나타낸다. (i a)의 경우에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리이고 (i b)에서는 많은 건물로 둘러싸인 거리라는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ii a)에서는 표면에 돌출되어 붙어있다는 느낌이 드는 신체부위에는 *on*이 눈과 귀, 입과 같이 안으로 들어간 부위에는 *in*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i) a. I met him *on* the street. b. I met him *in* the street.

(ii) a. I hit him *on* the jaw/ear. b. I hit him *in* the eye/mouth/ribs.(Swan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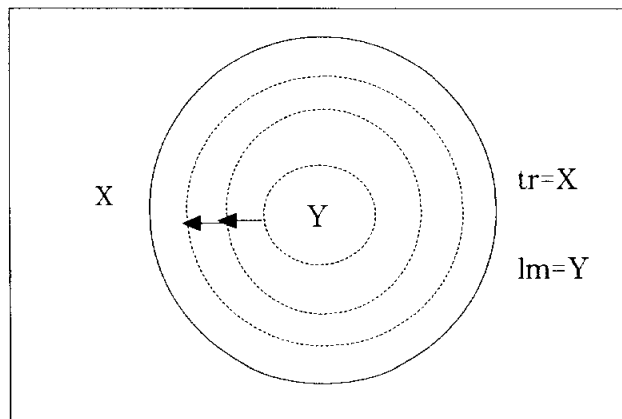
- (33) a. There were several interesting posters *on* the wall.
 b. There is a garden *on* the lake.



(a) on the wall의 관계 (b) on the lake의 관계 (c)

<그림 17>

by를 쓰는 경우에는 ‘탄도체 X가 지표 Y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를 가진다. by가 나타내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Herskovits 1986). 그리고 그 기본의미는 ‘영향권 가까이 또는 근접한’이라는 의미에서 ‘옆에’이다.



<그림 18>

강가에 집이 있는 경우에도 *by*와 *on*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원의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34) a. He has a house *by* the river.

b. He has a house *on* the river.

위 예문 (34a,b) 두 문장 모두 그가 강가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by*가 쓰인 (34a)에서는 탄도체 house가 지표 river의 영향을 — 시원한 바람, 또는 안개 등 — 받고 있는 점이, *on*이 쓰인 (34b)에서는 탄도체 house가 지표 river에 접해 있는 점이 다르다(이기동 2001).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전치사 *on*, *by*, *in*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교통수단이 커서 표면의 형태에 ‘붙어있는’ 것이 나타나거나, 이어져서 닿아있는 관계가 보이는 경우에는 *on*이, 작아서 표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안’이라는 의미의 *in*이,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동력원’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by*가 사용된다.

(35) a. He often travels *by* train.

b. He had lunch *on* the train.

c. They arrived *in* a limousine.

위 예문 (35a,b)의 경우에 지표가 같은 기차이지만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치사가 쓰인다. (35a)에서와 같이 지표 기차를 ‘동력원’으로 볼 때는 *by*를 쓴다. 그러나 (35b)에서와 같이 지표 기차를 ‘장소’로 볼 때는 표면에 붙어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on*을 쓴다(이기동 2001). (35c)에서는 리무진, 승용차, 소형보트와 같이 작아서 표면에 접촉이 보이

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 ‘안’이라는 의미의 in을 사용한다.

도로의 경우에도 on과 in의 사용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36) a. He parked his car *on* the road.

b. He parked his car *in* the road.

위 예문 (36a)에서는 탄도체 car가 지표 road의 가장자리에 주차시켰다는 말이 된다. (36b)에서와 같이 전치사 on 대신에 in을 사용하면 사고가 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주행지역’에 주차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에도 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접촉하는 접촉지역이라는 ‘접촉’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고, 반면에 i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다.

종사·봉사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on, in 어느 전치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때에도 on은 구체적인 물체인 탄도체가 추상적인 단체와 같은 지표의 표면과 ‘접촉’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in은 추상적인 단체와 같은 지표 ‘안’에서의 역할을 말한다.

(37) a. I'm glad to have a player like you *on* our team.

b. They play an important part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위 예문 (37a)에서는 탄도체 외부인인 player를 지표 team에 붙이는 것 즉,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37b)의 경우는 내부에서의 역할이다. 즉 탄도체 important part가 지표 international conference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corner라는 공간에서 전치사 on과 at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

(38) a. We will meet *at* the corner of the road.

b. I get my newspaper from the store *on* the corner.

c. I had to park *in* the corner of the parking lot.

*at*이 사용된 (38a)는 지표 *corner*가 길 위의 어떤 ‘점’으로 생각되는 경우 (이기동 2001)이다. *on*이 사용된 (38b)의 경우는 탄도체 *store*가 지표 *corner*의 ‘표면에 붙어 있다’. 그리고 *in*이 사용된 (38c)의 경우에는 *corner*의 영역 ‘안’이다. 그러나 전치사가 나타내는 공간적 차원이 위 의 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 (39)에 있어서 전치사 *at*은 점의 차원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인다(조경숙 1999).

(39) He lived *at* the cabin.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공간적 차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나, 화자가 공간적인 차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 포괄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전치사들을 무표적인 전치사(unmarked)라고 한다(조경숙 1999). 따라서 위 예문 (38b,c)에서 *on*과 *in*은 *at*으로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형적인 의미 차이는 있다.

특정한 *page*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전치사 *at*, *on*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 *on*과 *at*은 원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그 것은 *at*은 점으로 나타나는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며, *on*은

평면으로 나타난다.

(40) a. We stopped *at* page 15.

b. The accident is reported *on* page 20.

(40a)에서 지표 (책)전체에서 page 15를 가리키고, (40b)에서 지표 어느 주어진 page 20을 평면으로 보는 표현이다(이기동 2001).

전치사 *on*, *in*의 사용은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를 나타낸다. 아래 예문 (41a,b)에서 지표가 *street*라는 동일하게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도 (41a)에서는 탄도체가 *police officer*가 지표 *street*의 표면에 붙어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on*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41b)에서는 탄도체가 *man*이 아니라 *hand*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41b)문장에서 탄도체 *hand*의 움직임은 지표 *street*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street*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in*이 쓰였다. 만약 이 경우 *on*을 쓰게 되면 탄도체 *hand*의 움직임이 지표 *street*에 붙어서 하는 것이 된다.

(41) a. Additional police officers are being deployed *on* the streets.

b. A bald man had shaken his hand *in* the street.

3.5.2. 시간이란 의미에서 *in*, *at*과 비교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치사의 의미 또는 공간적인 차원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조경숙 1999). 이런 공간적인 의미의 차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공간적인 의미의 차이가 반영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on*은 탄도체가 지표인 시간과의 접촉, 즉

특정한 날, 특정한 날의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요일 등을 묘사하는 데에 쓰이고 있고, in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넓이가 있는 기간(period)을 표현하고, at은 시간을 점(point)으로 묘사하는 것을 나타낸다(김일곤 2000).

- (42) a. It occurred *in* the morning/ *in* July/ *in* 2000.
 b. It occurred *at* night/ *at* 10 o'clock.
 c. It occurred *on* Friday/ *on* the morning of the morning of April 1/ *on* New Year's Eve.

(42a)에서는 탄도체 It이 지표 morning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서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42b)에서는 탄도체 It이 지표 night라는 일정 시점에서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42c)에서는 탄도체 It이 지표 Friday와 붙어서 발생했다. 따라서 특정한 날을 나타낸다.

따라서 on을 써야할 위치에 in이나 at을 쓰는 경우에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 (43) a. She was born *on* July 10, 1980.
 b. *She was born *in* July 10, 1980.
 c. *She was born *at* July 10, 1980.

(43a)에서는 탄도체 she가 태어나는 것이 지표 July 10, 1980에 붙어 있음을 on이 나타낸다. 따라서 태어나는 것과 July 10이 떨어질 수 없는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43b)에서는 태어나는 것이 July 10의 영역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in이 나타낸다. (43c)에서는 태어나는 것이 July 10이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at이 나타낸다. 그런데 생일이란 의미는 특정한 날

과의 접촉이지, 그 날 가운데 어느 부분이거나, 또는 날을 시점으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43b,c)는 비문이 된다.

시간적인 면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전치사 *on*, *at*의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44) a. He is working *at* a new invention.

b. He is working *on* a new invention.

(44a,b) 두 예문 모두 he가 어느 발명품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on*이 쓰인 (44b)는 *at*이 쓰인 (44a)보다 그 기간이 더 긴 것을 암시한다(이기동 2001). 이것은 *at*의 의미가 점으로 나타나는 원형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즉 공간상에 점은 시간상의 짧은 시간에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에 *on*의 경우에는 면이나 선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on*이 길게 이어지는 선의 의미의 작업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고 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암시한다.

3.5.3. 방향이란 의미에서 *in*, *at*, *to*와 비교

전치사는¹³⁾ 이동의 방향이나 목표, 종착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 공간적인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즉, *on*은 그 종착지가 선이나 표면의 차원임을 나타내고, *in*은 어떤 공간 안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to*는 점으로 나타나는 목적점, *at*은 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점을 나타

13) 방향 유형의 전치사 대신 장소유형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대치현상은, 문장에서 이동을 추측하게 하는 동작 동사가 있거나, 이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 주로 일어난다(Quirk, et al. 1985). 즉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굳이 전치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형태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사용된다(조경숙 1999).

낸다(조경숙 1999).

- (45) a. 50,000 demonstrators marched *on* the Pentagon.
b. She stood up and walked *to* the window.
c. Dudley arrived *in* the kitchen with his mother.
d. Four police officers suddenly arrived *at* their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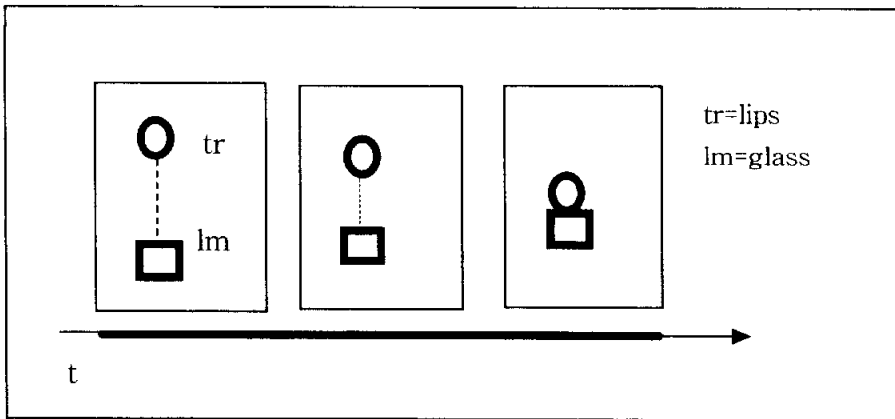
예문 (45a)에서는 탄도체 demonstrator가 지표 Pentagon에 붙는 방향으로 행진하여 궁극적으로 탄도체와 지표가 접촉하는 것을 나타내고, (45b)에서는 탄도체 she가 지표 window를 목적지로 향하여 움직인 것이고, (45c)에서는 탄도체 Dudley가 지표 kitchen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45d)에서는 탄도체 officer가 지표 house의 어떤 지점에 도착한 것이다.

전치사 on이나 to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공간적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on의 경우는 도착점이 지표의 표면과 접촉이고,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나타내는 to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에 매우 근접한 지점이란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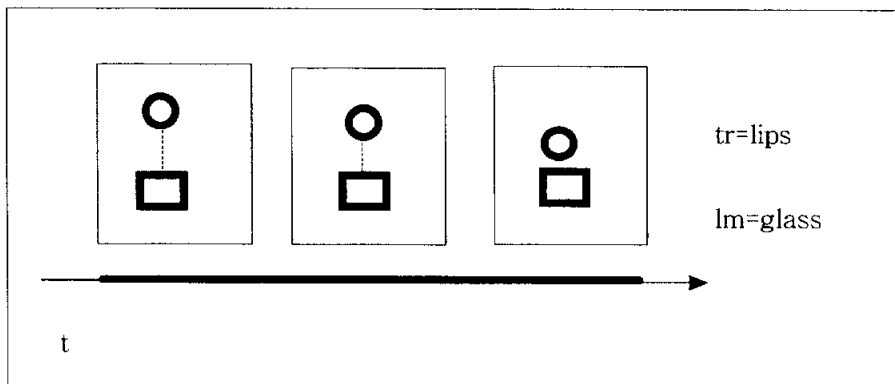
- (46) a. She put a glass of beer *on* her lips.
b. She put a glass of beer *to* her lips.

예문 (46a)에서 on은 탄도체 glass가 지표 lip을 향해서 움직여서 아래 <그림 15a>와 같이 탄도체와 지표가 ‘접촉한’ 것을 나타낸다. (45b)에서와 같이 to를 사용하면, 아래 <그림 19b>와 같이 탄도체 glass가 지표 lip에 ‘매우 근접’한 것이나 ‘접촉’한 것은 아니다¹⁴⁾.

14) Langacker(1988)는 아래 (ia)의 결과는 (ib)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했다.
(ia)는 탄도체 prisoner가 지표 fence쪽으로 간 것이고, 그 결과 (ib)에서는



(a) on her lips관계



(b) to her lips관계

<그림 19>

탄도채 prisoner이 지표 fence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근접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ii)에서는 탄도채 prison이 지표 fence에 ‘붙어있는’ 혹은 ‘접촉’해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ib)는 예문(ii)와 전혀 의미가 다르다.

- (i) a. The prisoner ran to the fence.
- b. The prisoner is already to the fence.
- (ii) The prisoner is on the fence

on과 to 어느 전치사를 쓰느냐에 따라 소유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에도 on과 to는 그 원형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on은 ‘붙어있는’ 관계이고, to의 탄도체가 지표를 향하고 있는 관계는 ‘탄도체가 지표와 떨어져 있으나 탄도체가 지표의 한 부분이 되는 관계’를 나타낸다(이기동 2001).

(47) a. Where is the knob *on* the radio?

b. Where is the knob *to* the radio?

예문 (47a)에서는 on이 쓰였는데, 이는 탄도체 knob가 지표 radio에 붙어있는 점이 강조된다. (47b)에서는 to가 탄도체 knob가 지표 radio에 분리되어 있으나, 지표 radio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나타낸다(이기동 2001).

3.5.4. 원인이란 의미에서 at, for, with와 비교

전치사가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치사는 원형관계를 반영한다. 원형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on은 탄도체 X가 지표 Y 위에 닿아 있는 관계이다. at은 어느 개체인 탄도체 X가 어느 선상에서 점으로 생각되는 지표 Y에 있는 관계이며, with는 어느 주어진 영역에서 탄도체 X와 지표 Y의 상호작용관계로 나타난다. 그리고 for는 어떤 영역 안에 있는 탄도체 X를 지표 Y와 바꾼다는 관계이다(이기동 2001). 이런 원형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on은 ‘~의 표면과 접촉’이고, at은 ‘하나의 지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with는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for는 ‘목적이나 의식이 그 쪽으로 향해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Quirk, et al. 1972). 이런 원의미(기본의미)라는 관점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on,

at, with, for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본다.

- (48) a. I congratulated him *on* his recent promotion.
b. I was surprised *at* the news.
c. Mary is in bed *with* cold.
d. They shouted *for* joy when they heard the news.

(48a)에서는 탄도체인 축하하는 행위와 지표 승진이 이어져 있음을 on이 나타내고, 이것은 세상일의 지식으로 보면 성공의 축하의 원인이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승진이 축하하는 행위를 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 (48b)에서는 탄도체 Mary의 surprised된 행위가 지표 news에 자극을 받고, 즉각적으로 나타내는(짧은 시간에) 자극-반응관계를 at이 나타낸다. (48c)의 경우에는 탄도체 Mary와 지표 cold가 병상에 같이 있음을 with가 나타낸다. 이는 자연히 Mary가 감기로 누워 있다는 뜻이 된다. (48d)의 경우에는 탄도체 they의 환호성과 지표 joy와 교환관계를 나타낸다. 즉, 지표 joy가 들어오고 탄도체 they의 환호성이 나감을 나타낸다(이기동 2001). 이는 뉴스를 듣고,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침을 for가 나타낸다.

이상에서 볼 때,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on을 쓰는 경우 이어져서 바탕이 된다는 ‘접촉’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다. at을 쓰는 경우에는 at의 원의미인 ‘점’이라는 의미가 시간적으로 ‘짧다’는 의미로 반영되어 ‘순간적인 반응’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또한 with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with의 원의미인 ‘함께 한다’는 뜻이 남아 있다. for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한다’는 ‘목적’이란 의미가 남아있다¹⁵⁾.

15) 원의미의 관점에서 for와 with의 의미의 차이를 좀더 살펴보면

3.5.5. 관련이란 의미에서 about과 비교

전치사 on과 about은 ‘~에 관련하여’라는 의미로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원형적인 의미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on의 원형적인 의미는 ‘붙어있는’이라는 의미이다. 명확하게 이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의존, 근거가 되는 과학적이고, 격식이 있고, 학문적이다. 아래 <그림 20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일곤 2000). 반면에 about은 ‘지표 Y의 위나 그 주위에 탄도체 X가 존재할 장소가 여러개 있을 수 있는 관계’이다. 이는 아래 <그림 20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기동 2001). 따라서 about의 그 원의미는 ‘~의 주변’이라는 의미이다¹⁶⁾.

(i) A baby's mother struck her baby.

a. So her son was crying *with* pain.

b. ?So her son was crying *for* pain.

위 예문 (i)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때렸는데, (ia)에서는 탄도체 son은 맞아서 아파서 운다. 따라서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의 with를 쓰면 탄도체 son은 아픔을 ‘가지고’ 운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for는 아픔을 구하려고 운다는 것 즉, 아픔을 나타내려고 운다는 것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은데 아픈척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Jim won the game.

a. His friend said to him you don't have to jump *for* joy.

b. ?His friend said to him you don't have to jump *with* joy.

(iia)에서는 시험에서 이겨서 기쁨을 나타내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점프를 할 때이고 (iib)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점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너무 기쁜 의도를 나타내지 말라는 의미에서(iia)가 적합하다.

16) about의 의미의 확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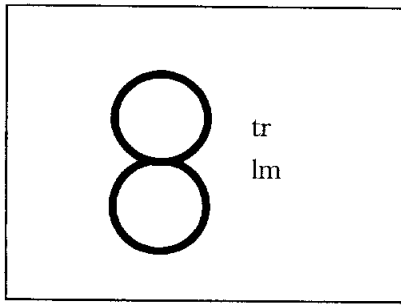
(i) a. Fifty or sixty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b. He came at *about*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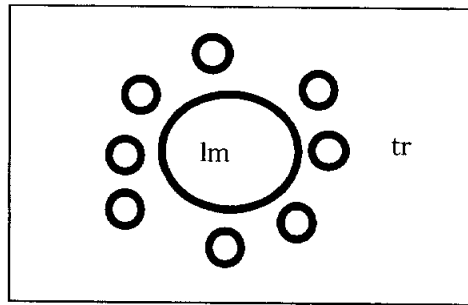
c. What's the best thing *about* the car?

d. There is a sense of humor *about* him.

(ia)에서 보면 탄도체인 사람들이 공간인 지표 table주변에 모여 있다. (ib)에서는 ‘시간주변’이라는 의미로 몇 시경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ic)에서는 지표가 물체인 car주변, 즉, car의 색상, 성능, 색깔, 최고 속도 등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id)에서는 사람에 관한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다(이기동 2001). 따라서 about의 의미는 주변적인 것에 ‘관한’이라는 의미의 ‘~에 관하여’이다.



(a) on의 관계



(b) about의 관계

<그림 20>

원 의미라는 관점에서 ‘~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on과 about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49) a. I have to write a report *on* the Civil War for history class.
b. Something *about* him seems strange.

위 예문 (49a)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탄도체 report가 논리적, 의미적으로 지표 Civil War에 ‘닿아서 바탕이 된다’ 혹은 접촉해서 ‘의존한’, ‘근거했다’라는 관점에서 ‘~에 관하여’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49b)에서는 지표 him 주변의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주변의 것은 걸음걸이, 말소리, 얼굴 모양, 몸짓, 성질, 인격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표 him의 이런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상하다는 뜻이다.

같은 지표에 대해서 한 같은 행위도 on이나 about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

- (50) a. He wrote a book *on* his experiences in America.
b. He traveled around Mexico and wrote *about* his experiences.

예문 (50a,b) 둘 모두 경험에 관하여 글을 썼지만 (50a)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험들이 책을 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그 책은 그의 경험들에 관한 내용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김은일 2000). 반면에 (50b)에서는 그의 경험들의 주변에 관한 글을 썼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50a)에서는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하여’라는 말이 되고, 반면에 (50b)에서는 일상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얻은 지식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51) a. I have a lecture *on* economics.

b. We had a conversation *about* birds.

위 (50a,b)에서, *about*, *on* 모두 ‘~에 관해(관한)’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on* 을 쓰는 경우는 구체적인 논리적, 의미적인 근거를 가진 과학적이거나, 학술적인 것을 표현한다¹⁷⁾(김명규 1999). 따라서 (51a)의 경우에는 지표 *economics*에 관한 학술적인 강의를 말한다. 반면에 (51b)에서 *about*은 지표 *birds*에 대해 보다 일상적인 수준에 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새가 크다, 예쁘다, 잘 먹는다, 귀엽다 등 새의 주변적인 이야기를 의미한다.

*on*과 *about*는 차이는 ‘근거가 되는’과 ‘주변’이라는 의미 차이 외에도 *on*에는 표면에 붙어 있다는 가장 원형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52) a. Did the crew believe the good words *about* her voice

b. *Did the crew believe the good words *on* her voice?

17) 같은 지표이더라도 *on*과 *about*의 사용에 따라 그 원의미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토끼에 관한 동화책이면 *a book about rabbit*이 되고, 토끼에 관한 동물학 책이면 *a book on rabbit*가 된다(김중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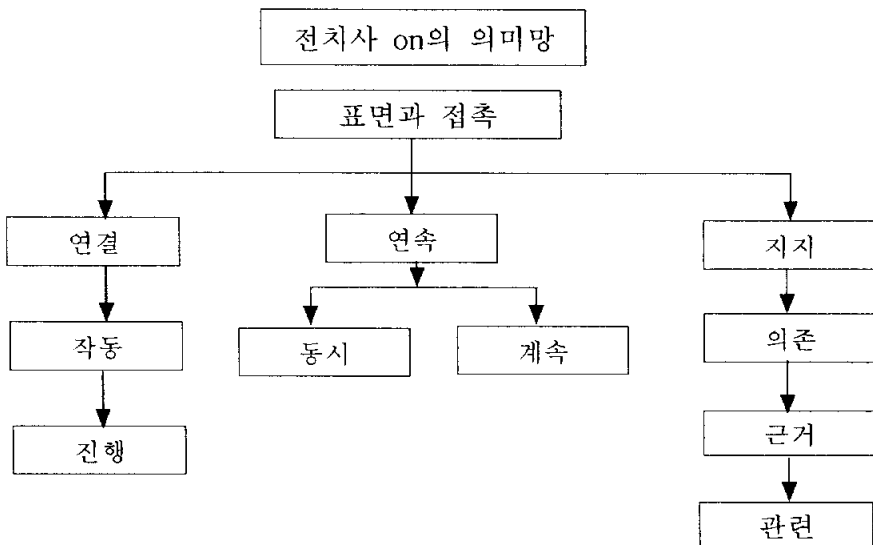
(52a)에서는 탄도체 good words가 지표 her의 주변적인 것, 즉 목소리의 좋고, 나쁨과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about의 기본의미 ‘물체의 주변’이란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52b)에서는 탄도체 good words가 지표 her voice의 관계에서 on의 의미는 좋은 목소리에 칭찬이 붙어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52b)에서는 탄도체와 지표간에 on의 원형의미인 ‘접촉성’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관점에서 보면, 지표 her voice를 듣고 어떤 판단을 한 다음 good word가 나온다. 따라서 good word가 물리적으로 her voice에 붙어있을 수 없으므로, 즉 동시간 대에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on 대신에 about를 쓰거나 꼭 ‘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쓰려면 from으로 바꾸어 써야한다. 이상에서 볼 때 on과 about이 ‘~에 관해서’라는 의미로 쓰이더라도 원형의미를 반영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같은 문장에서도 전치사의 선택에 따라 그 원의미 (prototype meaning)가 반영되고, 그것은 크거나 작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원의미 혹은 원형적인 관계에 따라 그 전치사 사용의 한계와 범위를 제한하거나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IV. 결론

4.1. 결어

본 연구는 Langacker(1988)에 의해서 제안된 분석방법에 따라 탄도체-지표관계로 전치사 on의 의미를 분석하여, on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가 일정한 인지적인 틀 속에서 서로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 체계적인 관련성은 원의미 ‘표면과 접촉’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의미는 ‘연결’, ‘연속’, 그리고 ‘지지’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다시 그 확장의미를 중심으로 의미가 계속 확장되어간다. 이 결과를 ‘의미망(meaning network)’의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전치사 on의 인지 의미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on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전치사를 공간, 시간, 방향, 원인, 관련으로 나누어 그 의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들 전치사의 기본의미는 on의 경우 ‘표면과 접촉’, in의 경우는 ‘안’, at을 쓰는 경우는 ‘지점’, to를 쓰는 경우는 ‘향하여’, with를 쓰는 경우는 ‘함께’, for를 쓰는 경우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동일한 지표라 하여도 그 전치사의 원의미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4.2. 교육적 함의 및 제언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학습자의 이해력을 높이거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학습자가 실제생활에서 풍부한 언어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전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어휘지도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Nagy의 주장처럼 어휘지도를 영한사전이나 영영사전의 뜻풀이 전달에서 벗어나 낱말의 개념(Concept)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을 전환해야 한다(1988).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 on의 원형적인 의미와 그 의미의 확장과정을 살펴보고, 인지의미론에 따라 ‘의미망’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관련되는 다른 전치사와의 의미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실제 현장에 때¹⁸⁾, 적용했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18) 전치사 on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조선영 2001).

참고문헌

사전류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2000). 서울: 동아출판사.

엘리트 영한사전. (1989). 서울: 시사영어사.

엡센스 영한사전. (2001). 서울: 민중서림.

Cobuild English Dictionary. (2001). Glasgow: Harper Collins Publishers.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2002). Oxford: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The Oxford Compact English Dictionary. (19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bster's II New College Dictionary. (1999). NY: Houghton Mifflin Company.

권덕임. (2002). 「영어전치사 학습상의 오류」.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난주. (1994). 「전치사의 다의성과 효과적인 지도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호. (2002). 「의미분석을 통한 at, on, in의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일. (2000). 「영어를 우리말처럼 내 맘대로 만들어 쓸 수는 없을까?」. 서울: 키출판사.

김일곤. (2000). 전치사 on의 인지적 연구. 「인문논총」(한양대학교) 30: 105-136.

- 김중현. (2002). 「의미의 관점에서 본 영어 전치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희. (1991). 「원형설에 의한 전치사 Above, On, Over, Up의 의미분석 및 그 효과의 측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태식. (1985). 「on의 의미와 용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동. (2001).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이창희. (2001). 전치사 on의 의미확대현상 분석. 「언어과학연구」 20: 275-295.
- 임지룡. (1999).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조경숙. (1999). 공간전치사의 기본적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호남대학교) 6: 33-48.
- 조선영. (2002). 「영어 전치사 on의 의미분석과 교수학습에의 적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중. (1987). 「영어전치사 of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충일. (1985). 「영어의 공간과 시간 전치사의 의미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nnett, D. C. (1975). *Spatial and Temporal Use of English Prepositions: An Essay in Stratificational Semantics*. London: Longman.
- Boi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s*. London: Longman.
- Cooper, D. E. (1986). *Metaphor*. Oxford: Basil Blackwell.
- Curme, G. O. (1967). *English Grammar*. NY: Barnes and Nobel Inc.
- Herskovits, A. (1982). *Space and the Prepositions in English*. Ph. D.

-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 (1986). *A Language and Spatial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Eunwin.
- Kim, Myung Kyu. (1999). *The Usage of Preposition on and its Application to Academic Writing*. 「경기영문학」 5: 287-304.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 (1988). A Overview of Cognitive Grammar. In Rudzka-Ostyn, B. (ed.)(1988). *Topics in Cogni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이기동 · 김종도 (옮김). (1991). 「인지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Lindkvist, K. G. (1950). Studies on the local sense of the Preposition IN, AT, ON and To in Modern English. *Lund Studies in English*, XX. Lund and Copenhagen: Gleerup & Munksgaard.
- Lynn, M. B. (1999). *English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gy, W. (1988). *Teaching Vocabulary to Improve Reading Comprehension*.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ED 298 471].
- Quirk, R., Sidney, G., Geoffrey, L., & Jan, S. (1972). *A Grammar of Contempotary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 Quirk, R., Greenbanum, S., Geoffrey, L., & Svartvik, J. (1985). *A*

-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Group.
- Swan, M. (1980). *Practice English Us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weet, H. (1955). *English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 Taylor, J. R.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조명원 · 나익주 (옮김). (1999).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문화사.)